

# “권리제한 구제·불성실신고 대비 필요”

## ‘포살결계법’ 시행령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포살결계법 권리제한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불성실신고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해야 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올해 하안거부터 시행하기로 한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포살결계법)’의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선원과 강원, 율원, 교구본사 대표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4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해인사 율주 스님, 파계사 율주 스님, 해인사 율원장 무관 스님,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계단위원), 풍도사 주지 정우 스

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선원수좌회 사무처장 강설 스님, 종회의원 성목·성호 스님, 전국강원교직자회장 우진 스님 등 선원과 강원, 율원, 교구본사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선원대표회의는 ▲결계에 빠진 토굴 수선안거 수행자라도 전국선원수좌회가 인정할 시 결계특 등재를 추후 인정 ▲안거는 수선안거만 인정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포살참여 예외 대상으로 규정된 ‘연령 60세 이상’ 조항은 법제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전국강원교직자회장 우진 스

는 “군 입대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해외 연수자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포살결계를 불성실 신고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양총회의원 승언 스님은 “결계특에 등재되지 않은 연한 만큼 법제 품수 자격을 늦추는 등 합리적인 구제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포살이 되도록 권리제한 조항은 좀 더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4월 14일 열린 교구본사 사무장회의에서는 ‘결계특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4월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선원·강원·율원 스님들이 ‘포살결계법’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포살 시행일을 올장에 근거해 음력 14·15일, 29·30일로 정할 것 ▲공찰은 반드시 관할 교구본사로 신고할 것 ▲현직 주지는 가능한 포살에 참여할 것 등의 의견

이 제시됐다. 조계종 총무부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시행령을 제정할 후 4월 넷째 주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조계종 특위 활동 본격 시동

## 1차 회의 열고 위원장 호선·사업 논의

지난 176회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구성된 7개 특별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호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승려노후복지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동광)는 4월 15일 1차 회의를 열고 ▲승가노후복지 실태조사 ▲공정회 등 여론수렴 ▲관련 법령 제정 ▲기금 마련 ▲전담기구 설치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율 한해 실태 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2009년까지 관련 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항철)는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전통사찰보존법’ 등 불교와 관련한 16개 법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열린 신촌불원사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위원장 성직) 1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간사에 장적 스님(총무원 재무부장)과 범해 스님(종회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17일에는 종단법요집통일을위한

위원회(위원장 일관)와 흥천사문제 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덕문)가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등을 선출했다. 법요집위원회는 연내 한글 통일법요집 발간 및 보급을 주요 사업으로 확정하고, 차기 회의에서 법요집 수록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흥천사문제특위는 실무자로부터 경과보고를 받고 5월 24일 현장답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열린 불교미디어관리위원회(위원장 일문) 1차 회의에서는 ▲미디어 현황 조사 ▲불교미디어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하기로 했다. 일문 스님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미디어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 매체가 발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불교미디어의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열린 예정이던 신홍불교군중장교교과관련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성원미달로 유보됐다. **여수령 기자**

# 태고종 사찰등록 갱신 7월21일까지

## 종무원장 회의 개최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4월 14일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열고 사찰등록 갱신과 승려 분한신고 및 일정은 4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확정했다.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중앙총회의장 인공 스님, 중앙사정원장 율운 스님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스님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종단 조직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찰등록 갱신 및 승려 분한신고 신청 서류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종단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또한 5월 23일 경남 통영시 한산도 일원에서 봉행되는 ‘임진왜란 전몰 순국선열 천도 영산대제’에 전국 종무원이 적극 동참하는 한편, 종단 내부문제를 언론 광고를 통해 공표한 자는 종원종법에 의거 조치할 것을 결의했다. **혜철 총정지사장**

# 승가 ‘부정비리 의혹’ 보도 잇달아

## MBC ‘뉴스후’ 등 방영 후 큰 파장... 조계종 “감사기능 강화” 논평

MBC ‘뉴스후’와 대구MBC ‘뉴스데스크’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12일과 16일 각각 조계종 스님들의 호화생활과 금권선거 의혹을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조계종은 14일 “종단의 자정성 강화를 위해 호법·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논평을 발표해 진화에 나섰다. ‘뉴스후’는 4월 12일 방영한 ‘사찰

살림 빼듯하다면서’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스님들의 외제차 및 골프 회원 소유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통행료’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과 문화재보수비를 유용해 수배 중인 스님의 사례를 지적했다. 또한 스님들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와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실태도 방영됐다.

방송 후 조계종 총무원은 14일 논평을 내고 “뉴스후의 방송 내용이 문화재에 대한 낮은 인식에서 기인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문화재관람료는 사찰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보수와 활용을 위해 사용하며,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라며 “그럼에도 ‘뉴스후’는 정부의 문화재 정책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문화재의 공공적 가치에 주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정에 대한 다짐도 이어졌다. 조계종은 “상반기 중 문화재관람료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교역자 스님들의 고

금승용차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청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계종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살과 결계를 통해 대중 원용 살림과 전통복원에 힘쓰는 한편, 종단 자정성을 높이기 위해 호법·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계종의 논평이 발표된 이틀 뒤인 16일, 대구MBC ‘뉴스데스크’는 통화사에서 금권선거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방송은 “2006년 4월 치러진 주지선출 선종 총회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재 조계종 총무원이 검찰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제 당사자로 지목된 스님은 이날 초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가 두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과 관련한 내사를 시작한 가운데, 조계종의 ‘호법·감사 기능 강화’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령 기자**



4월 17일 서울 기업은행 본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기업은행 윤용호 행장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태자비복지카드 사업을 협약했다.

# 신도증·신용카드가 하나로

## 천태종 복지재단-IBK기업은행 ‘천태자비카드’ 발행

천태종 복지재단(상임이사 경천)이 종단복지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천태자비카드’를 발행한다.

천태자비카드는 천태종 복지재단과 IBK기업은행이 함께 손잡고 만든 것으로 천태종 신도증을 겸한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다. 즉, 신용카드의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신도카드로서의 기능까지 더해진 셈이다. 종단복지기금은 카드 이용금액

의 일정비율이 공익기금으로 적립되면 은행에서 천태종 복지재단으로 다시 기부하는 형식으로 전달된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천태자비카드의 발행으로 ▲신도관리 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종도 소속자 기부심부어 ▲천태종 복지사업 기금 조성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종단 발전 도모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정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http://ad.buddhanews.com  
 FAX (02)737-0696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news.com  
 온라인서점 예시이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지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 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생활정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불타버린 송례문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축제기간중 대형 송례문등(燈) 전시』**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Lotus Lantern Festival

# 부산시민 연등 축제

봉축연합대법회 및 제등행진 5.10. (토) 오후 5시\_ 문현금융단지

식전축하공연 및 108배정진기도 (5.10 토 오후 2시) 봉축연합대법회 (5.10 토 오후 5시)  
 제등행진 (5.10. 토 오후 7시) 문현금융단지-불교신협 앞-범법골R-서면R-서면 밀리오레 앞-전포로-문현금융단지(순환코스 : 약4km)

시민연등축제 회향공연 “다함께 하나 되어...” (5.10. 토 오후 9시)

전야제\_ 5. 9. (금) 문현금융단지 (지하철 2호선 문전역 1번, 3번 출구)  
 신나는 이동 동물원(34종 100여 마리 동물)·전통연날리기 및 만들기, 부산불교음악회·전통 및 연등사진전(디카, 폰카 이용 / 즉석 접수가능)·점 등 식, B-BOY댄스경연대회

주최 \_ 부산광역시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 주관 \_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문의 \_ ☎051)867-0501~3 전승 : 051)867-0504 www.bba.or.kr(홈페이지 참조)  
 특별후원 \_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봉축연합대법회』 전 과정은 FM89.9MHz 부산불교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